

협업오경농장 김종경 대표

농업기술자상 본상 수상

지난 12월 17일(화) 세종문화회관 별관에서 개최된 제26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서 본회 전경남지부장 김종경씨(협업오경농장)가 농업기술상 본상을 수상했다.

농업기술상은 농촌의 개척자인 숨은 일꾼을 발굴해 공로를 찬양하고 성공사례와 업적을 널리 보급시켜 모든 농민의 귀감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1960년도 제정된 농업계의 민간운동이 마련한 최초유일의 포상제도로 농민으로서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농업기술자협회(총재 류달영)가 매년 농업계 각분야별 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서류심사, 현지심사, 최종종합심사 등 3차에 걸쳐 엄정 심사하는 권위있는 포상제도이다.

본상을 수상한 김종경씨는 1970년 5월 4일 경남 양산에 500수의 오경농장으로 양계업을 시작하여 주위에 있는 2개 농장과 최초로 협업공동체를 구성(1973년)하여 70년대 주변농가에서 지도를 받아 계속해서 양계장이 신설됨으로 적은 자본으로 협업으로 연결되는 양계장이 속속 개설되고(1975년 5월 협업오경농장 창립)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급속히 규모가 확대되어 1980년 16만수 규모에 20개



26회 전국 농업기술자대회에서 농업기술자상을 수상한 김종경 협업오경농장 대표.

의 농장으로 구성된 협업농장을 이루었다.

협업농장을 통해 자재, 초생추, 사료, 약품 등 공동구매와 생산물의 공동판매로 유리한 가격을 보장받게되고 각개농장은 생산성향상에만 전력을 다함으로써 최고의 생산성향상을 이루고 수익의 극대화가 이루어져 주변농가와 급격한 소득격차가 생겨 새로운 양계장들이 협업으로 계속 들어와 26개 농장 25만수 규모로 확장되었다(1982년).

경남 양산군은 물론 울주군까지 협업체를 형성해 84년도에는

43개 농장 44만수 규모로 늘어나고, 85년도에는 56개 농장에 54만수 규모가 되어 국내에서 2번째로 계란G. P 센타를 설립해 계열화생산 유통체제로 한걸음 발돋움 하였다.

현재 1일 계란생산량은 30만개 정도로 사료차를 이용해 계란을 G. P 센타까지 운반해 수송비를 절감하고 G. P 센타에 모아진 계란은 G. P 처리를 거쳐 끊임없는 판매전략을 개발해 유리한 방법으로 판매해 수익의 극대화를 이룬다.

협업농장의 경영주체는 구매 판매 수송 생산계획 기술지도 자금유통을 담당하고 각개농장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생산성향상에만 주력하게 된다.

신선란을 소비자에게 도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며 계란의 상품성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종경씨는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농경제학 전공)을 나와 양산농촌지도소에 잠시 근무했으며, 68년에는 일본에서 6개월간 농업기술 연수를 받은바 있으며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새농민상(1972)을 수상하고 농수산부장관 표창(1983) 등을 받았다. <斗>